

HOLY HABIT MOVEMENT PART 2

6. 소망 - 끝을 바라보는 태도

1.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라는 문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❶ 위로와 소망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도 결국 끝이 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라는 희망을 주듯 말입니다.

❷ 허무함과 아쉬움

동시에 좋은 순간들도 결국 끝난다는 뜻이기에 즐겁고 소중한 것들도 사라질 수 있다는 아쉬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도 언젠가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허무함을 느낄 수 있듯 말입니다.

❸ 두려움과 불안함

종말을 떠올리게 하기에 그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종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통제 밖에 있고,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많은 사람이 죽음을 끝으로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소망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상의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가깝게는 바사 제국의 멸망을, 멀게는 인간 역사의 끝을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세상도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이란 곧 최후 승리의 날입니다.
-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 끝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고전 15:20) 믿는 자들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계 21:4).

- 따라서 죽음의 두려움이 소망이 되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기다린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요 11:25-26; 고전 15:54-55).
-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약속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요 14:1-3). 그래서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빌 3:20-21).
- 마지막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계 21:4).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3.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이 말씀을 나,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도 다 이해하지 못한 예언의 말씀을 봉하라 말씀하시고 감추신 이후에 “다니엘아 갈지어다”(단 12:9a)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딘가로 이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서 네 할 일을 다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4.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믿음의 시험,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적 갈등, 영적 침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다만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롬 5:3-4; 약 1:2-4).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❶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사 41:10; 롬 8:28)

❷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 고난 앞에 조금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허락해주세요.”(약 1:5)

③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 주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살전 5:18)

5.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매일 경건하게 살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를 위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경건 생활과 사명 감당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 봅시다.

• 경건 생활

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진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배운다(딤후 3:16-17). 꾸준한 기도 생활로 날마다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간다(롬 8:14).

② 거룩한 삶 실천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하고 정결한 언행으로 살아간다(벧전 1:15-16).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날마다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는다(요일 1:9). 주어진 시간을 의미없는 것에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지혜롭게 사용한다(엡 5:15-16).

• 사명 감당

① 맡기신 사명을 찾고 실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찾아본다(고전 12:4-7). 그리고 가족, 교회, 직장 등 내가 속한 각 공동체에서 섬김과 선행의 자리를 자처하고 복음을 전한다(히 10:24-25; 마 28:19-20).

②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 흘려보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예수님과 같이 여겨 돕고 사랑한다(마 25:20). 정직과 성실함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을 드러낸다(골 3:22; 롬 12:8-9).

1.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줍니다(단 12:20).
- 마지막 때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 인생을 거룩한 삶, 의로운 삶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환난 중에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여기저기 분풀이를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웃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현재를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일은 매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과 의심,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욕망, 교만과 음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날마다 새롭고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많아지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끝이 있음을 알기에 현재를 헛되이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시 90:12). 그리고 현재를 헛되이 살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잠 9:10). 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마 24:44).
-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혜 있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단 12:3).

3.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나의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단 12:9a).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신 4:6; 마 7:24).

4. 우리 가정이 마지막을 소망하며 준비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대표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저희 가정이 그 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해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와 행동 속에 항상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 매일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게으르지 않고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아닌 하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